

# 소설 심사평\*

김형수

다시, 5.18이다. 매년 80년 5.18은 왜소한 일상에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항쟁의 현장으로 소환하고, 역사의 시간으로 호출하고, 기억 속의 희생자들을 호명한다. 이제 5.18은 서른 살을 넘었다. 완숙한 성인이 된 2011년 5.18은 우리에게 보다 성숙한 성찰과 냉철한 인식과 깊은 공감을 요구한다. '기억은 진실을 떠나지 않는다. 진실을 기만하겠다는 속셈에서만 떠날 수 있다.'(헤르타 뮐러)고 했던가. 진실을 끌어안으면서도 아픈 기억을 촘촘히 기록한 문학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는 각별했다. 5.18에 대한 문학적 심문에 치열하게 응답한 투고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심사위원들은 과거에 대한 추념보다는 현재적인 의미를 생성하는 테마를 가진 문학 작품을 우선 선정하기로 합의했음을 밝힌다. 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생채기가 남은 80년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투영하고 총체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무척 힘들다는 걸 안다. 직접 목격한 학살과 항쟁의 진상을 증언하는 글이 정교한 언어공법으로 구축한 글보다 생생하다는 것도 안다. 대다수 작품들이 엄청난 폭력을 경험한 인간의 내적 병리 현상과 상흔들을 여과 없이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일 터. 여전히 많은 투고자들이 공포와 두려움, 심리적 불안과 공황 상태에서부터 텍스트들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문제는 강도 높은 현장성에 지나치게 작가가 압도당한 나머지 산문의 객관성을 저버리고 있다는 데 있었다. 개인과 국가, 상처와 치유, 과거와 현재 사이에 놓인 긴장의 역학관계를 끈덕지게 추적하는 언어적 몸부림 속에서도 예술성을 확보하는 작품을 만나보고 싶어서 읽고 또 읽었다. 아울러 소설 미학을 정확히 인식했는가, 문체의 개성이 드러나 있는가,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함축된 인생의 보편성과 역사의 진정성을 일깨워주고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했다.

「담장을 따라 걷다」는 2인칭 시점으로 아버지 부재의 상처와 그 상처의 연원을 치밀하게 추적한 작품이다. 너무도 어렸던 주인공이 아버지의 손을 놓쳤던 시점이 바로 5.18 항쟁 현장이었다는 것, 아버지 부재가 국가 폭력 때문이라는 것, 부재가 실존의 절멸을 가져왔다는 것을 휘파람 소리를 따라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잘 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도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들의 과용으로 인해 구체적이고도 실감나는 고통의 목소리가 묻혀버린 한계를 보여주었다.

「육봉」은 가독성이 뛰어난 작품이었다. 구루병에 걸렸음에도 대학생 동생을 위해 목욕탕 때밀이로 일하는 못 배운 언니와 사회 개혁을 꿈꾸며 야학 선생 노릇을 하면서도 언니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에 번민하는 여동생의 모습이 갈마드는 서사를 운용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럼에도 작가의 의도가 읽혀지는 구태의연한 갈등구조와 편의적인 결말 등은 치열성을 좀 더 밀고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스쿠티카」는 투고작들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러운 소설 문체를 구사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어휘를 다루는 솜씨 또한 상당한 기간 갈고닦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스쿠티카 기생충이 광어 사육장을 황폐화시키면서 아울러 등장인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습이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도 장점이었다. 그러나 5.18 문학상이 지향하는 역사성의 매개 고리를 지금 현장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사육장으로만 국한시킨 점, 세련된 어휘를 녹진하게 서사로 이끌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는, 녹슨」은 1980년에 태어난 여주인공이 천안함 사고가 터졌던 2010년에 생을 마감한 이야기를 2인칭 시점으로 끌고 나간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현재 진행형으로, 다르지만, 동일하게, 반복되고 진행되는 역사의 상흔을 호들갑을 떨지 않고 차분히 그려내고 있었다. 자칫 소재주의로 함몰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비껴가면서, 풍자와 페이소스를 적절히 서사 속에 갈무리하고 있었다. 약간의 신과와 작위성이 흠으로 작용하기는 했으나, 내면적 풍경과 바깥 풍경이 적절하게 조응하면서 주제를 잘 드러냈다는 점, 개인의 상처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연원하고 있다는 걸 제시한 점을 높이 샀음을 밝힌다. 당선을 축하드린다.